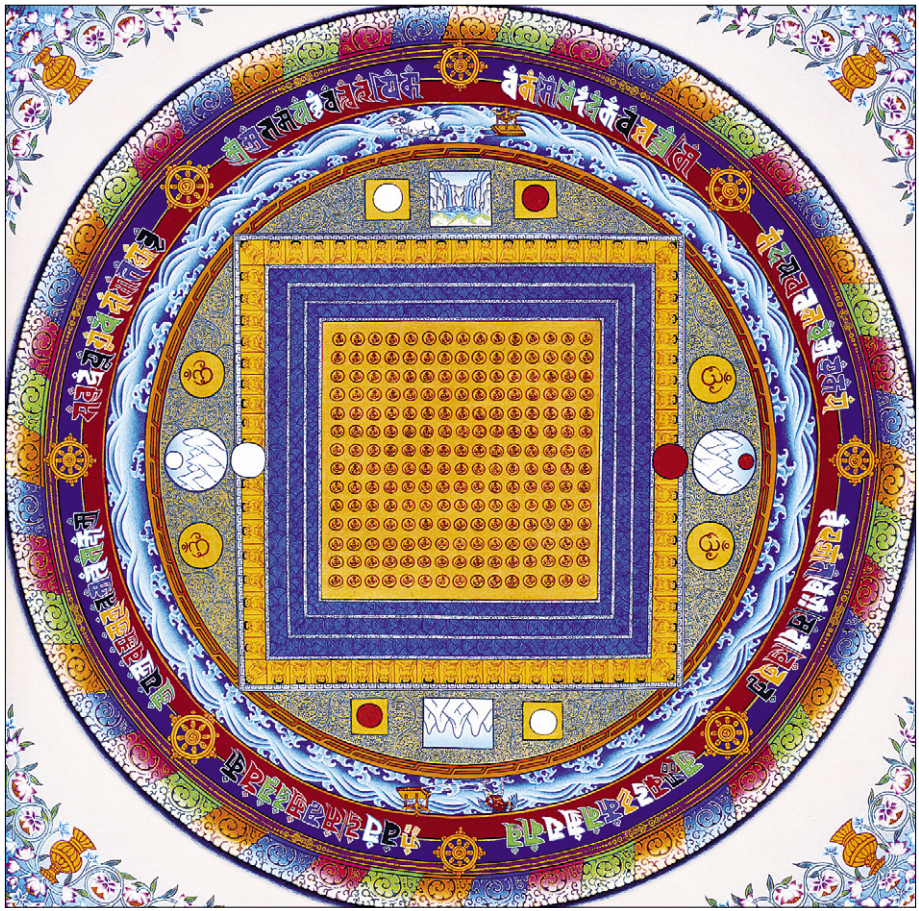


‘빛의 씨앗’ 찾아 떠나는 여행

불일미술관서 5월 30일까지 동휘 스님 해피만다라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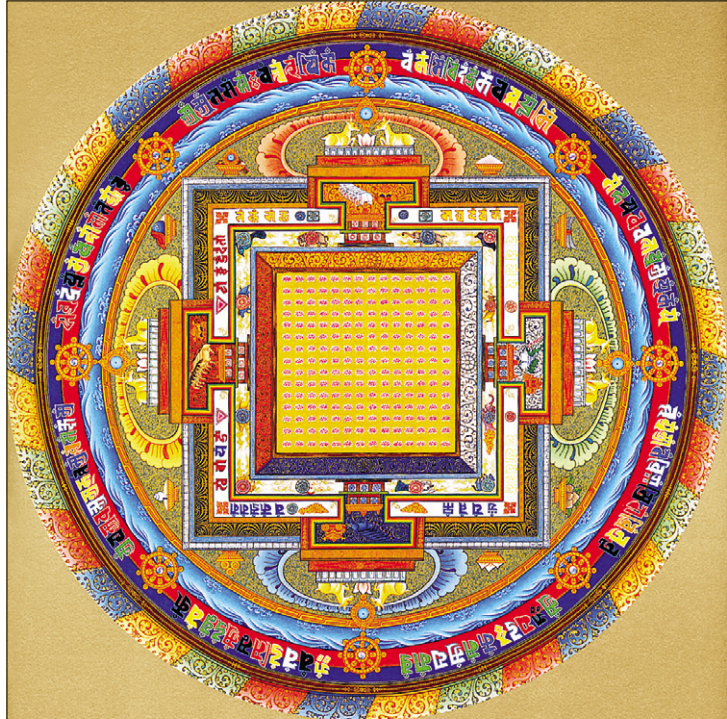
동휘 스님은 파스텔 계열의 환한 색채로 한국식 만다라를 표현했다.

“부처님 세상이야말로 진정한 ‘해피월드’입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해피만다라’로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행복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동휘 스님(해피만다라 문화원 원장)이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해 우주의 진리를 표현한 만다라를 선보인다. 스님은 ‘해피만다라 해피만다라 해피코리아’라는 행사를 통해 세계 각국의 만다라작품들과 스님의 해피만다라 작품 200여 점을 선보인다.

스님은 “만다라는 병든 영혼과 심신을 치유하는 ‘빛의 통로’”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전 세계가 행복해지고, 그 빛의 중심에 한국이 있고, 부처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동휘 스님의 이번 해피만다라전은 ‘빛을 먹다’라는 주제로 출판기념회 및 깨달음의 씨앗, 빛의 씨앗 해피움 퍼포먼스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스님은 “식물과 동물에 씨앗이 있듯이, 빛에도 씨앗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피만다라에는 이런 빛의 씨앗이 중심에 들어있으며, 그 빛의 씨앗은 우리들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 해주는 열쇠”라고 설명했다.

스님은 “모든 예술작품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만다라는 부처님의 진리와 깨달음, 우주의 빛의 상상의 세계가 창조된 것이다. 그래서 만다라는 그 내면을 이해하기 쉽지 않다. 만다라를 그리는 것은 깨달음의 과정이며, 깨달음은 바로 부처님 말씀인 ‘빛’의 세계이다. 만다라를 보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기쁨을 얻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동휘 스님이 이처럼 ‘빛의 씨앗’에 대해 주장하는 것은 스님이 직접 만다라를 그리는 과정에서 자궁 속의 태아 같은 작은 마음의 씨앗이 움(壼)의 형상으로 점점 커지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이다.

스님은 “어느 날 기도를 마치고 눈 덮인 도랑을 걷고 있는데, 얼어붙은 연못 위에 햇빛이 가득했다. 그 햇빛 속에서 어머니 뱃속에 든 태아 같기도 한 밝은 모습의 ‘움’ 자가 수없이 반짝이는 것을 목격했다. 그 움자는 빛을 받으며 점점 커지더니 움의 형상으로 하늘로 솟구쳤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 체험을 겪고 난 후, 만다라에 관련된 자료들을 찾아 어느 영국서적에 ‘움 마니 반메홀’이 ‘빛의 씨앗’ ‘말의 씨앗’ ‘깨달음의 씨앗’으로 표현된 것을 발견했다. 동휘 스님은 “그때부터 빛도 씨앗이 있음이 알게 됐다”며 “사람들은 햇빛 속에 서있어도 그 햇빛을 잘 인식하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빛의 씨앗을 해피만다라를 통해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스님의 작품 중 ‘해피움’은 이런 빛의 씨앗을 나타내는 대표작이다. ‘해피움’은 마치 태아가 움크리고 있는 형상 같기도 하고, 하트모양을 연상시키기도 하며, 움이 꿈틀대는 모습 같기도 하다.

스님은 “모든 예술작품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만다라는 부처님의 진리와 깨달음, 우주의 빛의 상상의 세계가 창조된 것이다. 그래서 만다라는 그 내면을 이해하기 쉽지 않다. 만다라를 그리는 것은 깨달음의 과정이며, 깨달음은 바로 부처님 말씀인 ‘빛’의 세계이다. 만다라를 보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기쁨을 얻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동휘 스님은 이번 해피만다라전에서 스님만의 한국식만다라를 선보일 예정이다. 티베트의 만다라가 검은빛이 도는 짙은색채를 주로 사용했다면, 스님은 빛의 세계를 구현하고자 파스텔톤의 밝은 색채로 만다라를 표현했다.

“우리 몸의 빛의 통로는 바로 ‘눈’입니다.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느끼는 것이 바로 ‘빛을 먹는 것’입니다. 해피만다라 또한 제가 본 빛의 씨앗으로 빛의 통로를 맑은 분들에게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해피만다라를 통해 우주의 행복과 빛의 통로가 한국불교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동휘 스님의 해피만다라 대전은 5월 30일까지 서울 법원사 불일 미술관에서 열린다. (02)733-5322 이은정 기자 soej84@buddhapia.com

공과 색, 인드라망으로 엮이다

정산 김연식의 ‘천강에 비친 달’ 담갤러리서 5월 28일까지

세상은 진보한다. 이는 미술도 마찬가지이다. 기존의 관습적인 미술행위를 벗어난 설치미술, 행위미술, 오브제 등 파격적이고 창조적인 미술세계가 요즘 현대미술의 주를 이루며 관람객의 다양한 감정과 사고, 상상력을 자극한다.

정산 김연식(사진)은 서울 안국동 담 갤러리에서 5월 28일까지 ‘천강에 비친 달’전을 연다. 매니큐어로 다양한 회화작품과 설치작품을 선보여 왔던 그는 이번 전시에는 좀 더 실험적인 설치작품을 보여준다.

성냥갑 크기의 포맥스에 매니큐어로 ‘무(無)’와 달을 그려 넣는다면, 대중매체의 잡지들을 플라주해 오브제를 완성한다. 이는 저마다의 마음에 비춰진 달을 통해 우리네 사는



인간사를 말한다. 단위원소의 작은 오브제들은 다시 이미지가 그려져 있지 않은 흰 측면이 전면을 향하도록 접착해 병렬시킨다. 이렇게 쌓인 오브제들은 전시장 건물을 통째로 감싸며, 건물에 또 하나의 오브제로 탄생된다. 이번 전시에 사용된 성냥갑크기의 포맥스만 해도 외부에 2만 3000개, 내부에 1만6000개 정도가 사용됐다. 불교의 ‘공(空)’과 ‘색(色)’을 표현하기 위해 한쪽에만 표현된 그림은 수 만개의 오브제를 병렬한 탓에 빈 화면에 그림이 비춰져, 그 빛의 반영을 통해 신비감을 불러일으킨다. (02)738-2745 이은정 기자

진분홍 작가 금니의 현대적 변용

고려불화의 전통적인 기법을 현대의 풍경에 새롭게 담아낸 작품이 있어 눈길을 끈다.

진분홍 작가는 전통의 금니(金泥)기법을 새로운 환경과 자연에 다시 재현해 새로운 화법을 구사한다.

2009년 북한문화공간인 스페이스 선+의 신진작가 공모전에 당선된 진분홍 작가는 전통미술이



진분홍 작가의 ‘무제’.

부진하는 가운데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획기적인 작품이라는 평을 받았다.

신사위원장 정준모(국민대 미술관박물관) 교수는 “북한에서 어렵게 존속되는 금니와 기법이 한국화의 새로운 방법으로 재현돼 앞으로 새로운 장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진분홍 작가의 ‘복고 풍경’전은 5월 25일까지 스페이스 선+에서 열린다. (02)732-0732 이은정 기자

연극 ‘지대방’ 6월 6일까지

자신의 진정한 자아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하는 연극이 있다. 산중의 안거에 든 세 스님들의 이야기를 다룬 ‘지대방’이다. 이미 2006년 초연된 연극으로, 불교의 소재를 따뜻한 감성적 스토리로 녹여낸 작품이다.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원담 스님의 작품이기도 하며 당시 출연배우들이 사박을 감행할 정도로 연기에 대한 열정을 보이며 큰 반향을 일으켰던 지대방이 또 한 번 무대에 오른다.

이번 ‘지대방’ 공연의 연출은 현재 극단 원자무늬 대표인 김태수가 맡았다. 원자무늬 극단의 지대방 공연은 6월 6일까지 서울 동숭동 대학로극장에서 공연된다.

공연은 허은, 둔조, 해산 세 스님이 치열한 수행생활의 과정을 보여준다. 그러던 중 어느 날 한 스님이 6년간의 무문관 수행중에 잠적하는 일이 발생한다.

작품을 쓴 원담 스님은 “삶에는 정답이 없듯이, 무문관 같은 고행이 아니어도, 지대방이라는 공간을 통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지대방은 스님들이 공부해 하다가 잠시 쉬는 방을 말한다. 연극은 어지러운 세속을 정화시키려는 듯 동화적인 세계가 그려진다. 인간 본성의 ‘참 자아’를 찾아 고행하는 수행자들의 모습을 통해 상상과 생명존중의 의미를 깨닫게 한다.

연출을 맡은 극단원자무늬 김태수 대표는 이번 공연에 대해 “현대사회는 생명 존중사상의 결여와 무지비한 소비문화의 정착으로, 서로를 경쟁구도로 몰고 가고 있다”며 “막장드라마 등이 유행하는 시대에 모든 경계를 허물고, 진정한 나를 찾아 자유를 느끼게 해 줄 수 있는 작품”이라고 소개했다.

공연에는 정현, 배상준, 배수백, 이윤규 등이 출연한다. (02)765-1984 이은정 기자

빙의의 시대 증상을 바로 알면 치료법이 보인다!!!



우리출판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총정로 3가 1-38 전화 (02)313-5047, 5056 팩스 (02)393-9696

빙의의 시대
빙의란 무엇이며 어떻게 인간에게 영향을 끼치는가?
또 그 치료법은 무엇인가?
일평생 빙의치료를 공부해온 저자는 이 책에서 사후 영역에 있어야 할 귀신이 인간한테 접근하는 과정과, 귀신을 천도하여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 등을 자세히 보여주고 있다

빙의의 시대 2
《빙의의 시대》를 출간한 뒤 수많은 독자와 빙의 환자, 또 그들의 보호자들을 상담하면서 느꼈던 1권에서 못 다한 이야기를 내놓았다. 이 책에서는 귀신에 접근되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과 조기퇴치의 방법, 본인 스스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 등을 알려준다.

저자 / 일광(逸廣) 선생
오로지 천지인(天地人)의 궁극적 이치를 깨우치기 위해 전국 산하를 떠돌며 수행하던 일광 선생이 문득 회통의 밝은 빛을 보았으니, 오대산의 한 토굴에서였다. 그 뒤로 사후세계가 확연히 드러나며 영령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고, 자신의 역할이 그들 귀신들을 안온한 세계로 천도해 다시는 인간세계로 돌아오지 않도록 하는 것임을 깨달았다.
(빙의의 시대)는 그러한 마음에서 저술한 일광 선생의 첫걸음이다.

- 병은 알릴수록 양약이 나타난다!**
- 정신질환자 ● 우울증으로 고생하시는 분
 - 귀신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 무당 생활이 싫으신 분
 - 꿈에 죽은 사람이 자주 보이고 가위눌림에 시달리시는 분
 - 환청이나 환각으로 고생하시는 분
 - 귀신이 몸에 있다고 고민하시는 분
 - 몸에 통증은 있지만 병원의 진단에는 이상이 없는 분
 - 원인 모르는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 좌골신경통으로 오래 동안 고생하시는 분
 - 만성 간경화증 환자 ● 말기 간암 환자
- ※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책을 읽은 뒤에 상담해주시시오.
- 상담전화 02) 743-7679, 010-5040-7679